

“더 커진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팀으로”

지난해 스프링캠프 출발 직전 사령탑을 잃은 KIA타이거즈는 이범호 타격 코치를 제11대 감독에 선임하며 소방수 역할을 맡겼다. 그는 취임 첫해 초보 감독에서 우승 사령탑으로 거듭나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전남일보는 이 감독과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 각오를 들었다. 편집자주



7년 만의 KBO 우승 광파르 주역
포용·공정·믿음 갖춘 형님 리더십
최강 전력으로 새 시즌 연패 도전
부상·부진 등 변수에 만반의 준비



▲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지난해 7월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원정 경기에서 직접 마운드에 올라 선수단을 다독인 뒤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 이범호 KIA 감독이 지난해 10월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뒤 춤을 추며 자축하고 있다.

↓ 이범호 KIA 감독이 지난해 2월15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열린 1차 스프링캠프에서 양현종의 불펜 투구를 지켜보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형님 리더십 갖춘 소방수 취임

“가을야구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선수들 덕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죠. 새 시즌에도 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만 대신 간절함으로 임하겠습니다.”

‘초보 감독’에서 ‘우승 사령탑’으로 거듭난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지난 시즌에 대한 회고와 함께 새 시즌 구상을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해 최강 전력을 발판 삼아 정상에 오른 만큼 새해에는 유지에 초점을 두고 연패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이 감독은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반드시 5위권에 들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3위권까지 올라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 시작했다”며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까지는 우승을 생각할 수 없는 시기였다. 팀을 잘 추스르자고만 생각했다”고 취임 당시의 마음가짐을 회상했다.

이 감독의 취임 당시 KIA는 최악의 분위기였지만 분위기를 차분히 해쳐나갔다. 선수단에 ‘즐거운 야구’를 강조하며 선수와 2군 총괄 코치, 1군 타격 코치를 거치는 동안 파악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조직을 재 정비했다.

그는 “선수들의 기록과 능력을 봤을 때 어느 팀에도 안 뒤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감독에게 잘 보여야 경기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다”며 “즐겁게 야구만 하라고 항상 얘기했다. 팀을 추스르면서 선수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약재 지은 두터운 선수층 구축

이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윤도현과 변우혁, 정해원, 주효상, 박정우, 박민 등 미래 자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부여했다. 페넌트레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발굴해냈다.

그는 “선수 기용에 있어서 근성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중요시했다. 기존에 활용되던 선수들보다 퓨처스에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 능력치를 파악하고 싶었다”며 “흥이 있고 욕심이 있는 선수들이 잘되면 백업 선수층이 넓어진다. 이들도 분명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이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면서 KIA는 더욱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시즌 나성범을 시작으로 황대인과 이의리, 임기영, 윌 크로우, 정해영, 이우성, 윤영철, 제임스 네일 등 주축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했음에도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는 “노력에 따라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팀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건전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의 야구관으로 독주 체제 가속



이범호 감독은

생년월일	1981년 11월 25일 경북 의성 출생, 43세
학력	대구수창초-경운중-대구고
프로 입단	2000년 2차 1라운드(전체 8번, 한화)
선수 경력	한화이글스(2000-2009) -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2010) - KIA타이거즈(2011-2019)
지도자 및 프런트 경력	KIA타이거즈 스카우트(2020) - KIA타이거즈 2군 총괄 코치(2021) - KIA타이거즈 1군 타격 코치(2022-2023) - KIA타이거즈 감독(2024-현재)
수상 이력	KBO 골든글러브 3루수 부문(2005-2006), KBO 골든포토상(2006), KBO 리그 통합 우승(2009-2017-2024),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2009), KBO 리그 개인 통산 300홈런(2017),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만루 홈런

두터운 선수층을 갖춘 KIA는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6월 중순 선두를 재탈환한 KIA는 9월 중순까지 단 한차례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페넌트레이스 일곱 경기를 남겨놓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삼성라이온즈에 4승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감독은 “선두를 달리면서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잡히지 않았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경쟁 팀들이 잡혀주는 행운이 따랐다”며 “지난해와 달리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KIA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집중력

을 선보였다. 코칭스태프들이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 조급해질 수 있었지만 이 감독은 인내심을 갖고 선수들을 믿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무산되더라도 그는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감독은 “지고 있어도 선수들이 뒤집어보자고 분위기를 올리는 느낌이었다. 경기 중반까지 힘을 못 쓰다가도 후반에 능력을 잘 발휘했다”며 “찬스에 점수를 못 내도 다시 해줄 거라고 기다려줬다. 선수 입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복기했다.

●최강 전력 바탕으로 연패 도전

본격적인 새 시즌 구상도 시작됐다. 프런트에서는 장현식의 공백을 조상우로 메웠고, 제임스 네일과 제

계약을 맺은 뒤 아담 윌러와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며 외인 구성도 마쳤다.

최강 전력을 유지한 이 감독의 새 시즌 키워드는 부상 방지다.

그는 “이의리가 복귀하는 시점까지 누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지, 타자들의 하향 곡선을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페넌트레이스를 치르다 보면 부상자가 한두 명씩 꼭 나오기에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인 구상이 시작될 것이고, 건강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온 만큼 KIA 팬들과 광주시민, 전남일보 독자들에게 대한 인사도 전했다. 우승 사령탑답게 정신없는 겨울을 보냈지만 차분하게 새해를 맞겠다는 다짐이다.

이 감독은 “연말에 각종 시상식과 행사로 바빴고, 연초에는 신인 훈련을 지켜보다 금방 스프링캠프를 떠난다”며 “모든 분들 덕분에 2024년을 잘 마무리했고, 2025년에 대한 큰 기대감도 잘 알고 있다. KIA가 125만 관중, KBO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만큼 매 경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팀을 잘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